

TRANS- HUMANITIES

Title : 3월 11일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How to Imagine Japan and the World after 3/11

Author(s) : 심정명 (Jeongmyoung SIM)

Source : *Trans-Humanities*, Vol. 9 No. 2 (2016), pp. 225-51.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3월 11일 이후의 일본과 세계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¹

심정명 (한양대학교)

I. 들어가며

“3.11이 발생해 전쟁의 여름은 끝났습니다. [...] 전쟁을 대신할 일대 이벤트가 드디어 발생한 것입니다.”(第五講 sec. 6, par. 6).

매해 8월이 되면 돌아오는 패전의 기억을 대신할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음을, 소설가 사토 유아(佐藤友哉)는 이렇게 선언한다. 다소 조심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말에는 3.11 즉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 이어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는 일련의 복합재해를 대하는 문학자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쓰나미의 충격적인 영상과 직후에 터진 원전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언어의 무력함을 느끼게 했고, 적지 않은 일본의 문학자들이 언어와 세계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데 주목하기도 하였다.² 하

1.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1-A00005).

2. 가령 2012년 문예지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学)은 해당 홈페이지에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15명의 소설가들이 기간 한정으로 공개한 작품들을 수록한 중간호에 「진재(震災)와 ‘픽션’(말·일상·이야기...)의 ‘거리’라는 대답을 꾸뻘다. 여기서 소설가 가와카미 미에코(川上未映子)는 “말이 풀어져 버리는 듯한 느낌”(202)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때의 논의 주제는 말 그대로 “말은 살아남을 것인가?”였다. 소설가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 또한

지만 많은 이들이 느꼈을 말의 무력함에 대해 “당신의 글이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을 텐데”(第四講 sec. 2, par. 61)라고 일갈하는 사토 유야는, “또 ‘무엇을 쓰면 좋을지 알 수 없다’고 주저할 건가? 그도 아니면 정색하고 ‘힘내자 일본’인가?”(第五講 sec. 7, par. 48)라는 말로 3월 11일 직후 일본의 언설 공간을 단적으로 요약한다. 확실히 3월 11일을 둘러싼 조심스러운 침묵 곁에는 ‘힘내자 일본’을 연호하며 쓰나미와 원전 사고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한 ‘일본’이라는 공동성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일어난 사태에 대한 약간의 고양감도 느낄 수 있는 사토 유야의 이 말에서 ‘3.11’은 “전쟁을 대신”하는 사건으로 그려진다. “전쟁의 시대는 3.11을 경계로 끝났다”(第五講 sec. 8, par. 6)는 것이다. 사실, 2011년 3월 11일을 1945년 8월 15일 패전 이후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다양한 언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평론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폐허가 된 피해지의 모습에서 전후의 불탄 자리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상기하면서 전후(戰後) 복구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표했고, 전후의 일본을 대미 종속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정치학자 시라이 사토시(白井聡)는 3월 11일이 다름 아닌 ‘평화와 번영’의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했다. 또한 3월 11일은 전후라는 시간 전체를 되묻거나³ 전후를 소급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이해되었으며,⁴ 전쟁 이전부

『비상시의 말』(非常時のことば)에서 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유례없이 큰 재해가 많은 언설들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잃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과 언어 사이의 괴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3. 도미야마 이치로(冨山一郎)는 멜트 다운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 중’인 긴 비상사태를 계엄 상황과 관련하여 읽어내며, “원자력을 묻는 것은 전후라는 시간 전체를 묻는 일이다. 거칠게 말해 이 나라는 제국의 붕괴를 받아 안은 적 없이 ‘전후’라는 시간을 새겨나갔고, 굳이 말하자면 전후를 걷는 데에 실패했다”(5)고 하면서 3월 11일이 “이 나라의 전후 전체를 다시 한 번 되물을 계기”이기도 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4. “〈3.11〉 이것은 우리에게 ‘전후’를 들이민다. 우리의 〈3.11〉은 바로 다름 아닌 전후라는 자격으로서 1945년 이후의 ‘전후’를 소급적으로 바꾸는 계기여야만 한다. 우리는 종전이라고

터 줄곧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이른바 ‘무책임의 체계’(酒井 32-33)를 극복하고 다른 공동성을 모색해야 함을 일깨우는 사건이기도 했다.

확실히 쓰나미가 휩쓸고 간 도호쿠의 풍경은 전쟁의 폐허를 방불케 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실종은(내각부에 따르면 사망자 15,859명, 행방불명자 3,021명) 전쟁의 참상에도 빗댈 만한 것이었다. 소설가 이케자와 나쓰키(池澤夏樹)는 2011년 4월 5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칼럼에서 “숙모는 지금이 전후와 같은 분위기라고 말한다(전쟁 중과 같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이는 일 없이 그저 죽임을 당했고, 파괴하는 일 없이 그저 파괴되었다). 십 년에 걸친 부흥(復興)의 날들이 시작될 것이다”(128)라고 썼는데, 이는 결코 예외적인 감상이 아니었을 터이다. 하지만 ‘전후’라는 시간이 문제되는 이유는 단순히 쓰나미가 가져온 파괴와 죽음 때문만은 아니다. 전후의 복구와 부흥이 갖는 다양한 문제들이 특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똑똑히 드러났다는 인식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⁵ 따라서 경제 성장이나 안보 같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시스템이 비판되는가 하면(高橋), 거꾸로 전전과 전후를 관통하는 경제 성장의 역사 속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원자력을 끌어안은 지방의 자발적인 식민화가 문제시되기도 했다(開沼). 이때 두 차례에 걸친 원폭 투하의 기억이 종종 소환되곤 했는데,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기실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되기 이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의 국제 질서와 핵을 둘러싼 지정학 속에서 이루어졌다.⁶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3월 11일을 ‘제2의 패전’이나 전후의

말하는 데 익숙해진 패전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패전, 전후 직후(1945-1955년)의 두 번째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전을 지금 되풀이해야만 한다.”(長原 66).

5. 물론,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가 지적하듯 3월 11일은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천재(天災), 인재(人災), 핵재(核災)가 복합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키나와, 대공습 등의 과거를 참조 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6. 널리 알려진 바, 일본의 원전은 핵무기와 관련한 기술 억지(抑止) 정책과 연동하고 있다. ‘플

복기로 규정하는 일은 단지 전후라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상기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과거와 연속하는 지금 현재를 비판하며 그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구상해 내는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끝 혹은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3월 11일 이후 일본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원전 사고의 경우, 2011년 12월 16일에 당시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원자로가 냉각 정지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사고 자체가 수습되었다고 선언한 것을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3년에 철회한 바 있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지금 후쿠시마 현 일부 지역의 피난 지시를 해제하거나 해제할 준비를 시작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사고 자체가 거의 수습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원전과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1년 4월 10일 “원자력 발전을 멈춰라 데모!”를 시작으로 거의 매회 만 오천에서 이 만여 명의 참가자를 모은 반/탈원전 집회의 연속은 데모를 통해 일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⁷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탈원전 집회의 참가자 수는 수십, 수백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⁸ 시민사회의 논제는 SEALDs(Students

루써멀(plutonium thermal) 계획 즉 핵연료 사이클 계획에 따라 몬주(もんじゅ)의 고속 증식로를 가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239는 핵무기의 원료가 된다(小出 121-24).

7. 예를 들어 가라타니 고진은 이러한 반/탈원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직접 참가하기도 하면서 향후 일본을 “데모를 하는 사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反原発デモが日本を変える」). 또한 『민주와 애국』(民主と愛国), 『1968』 등의 저작을 통해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을 고찰하는 작업을 한 바 있는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는 『사회를 바꾸려면』(社会を変えるには)에서 데모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를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8. 반/탈원전 운동을 분노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영진은 운동이 쇠퇴하는 원인을 분노의 힘을 스스로 거세하는 일본 사회의 집회 문화에서 찾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히 탈원전을 주장하는 운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성을 문제 삼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 한편, 이러한 반/탈원전 운동에는 2011년의 또 다른 시민운동인 반(反)한류 시위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를 중심으로 한 안보법안 반대
 대에 집중되어 갔다는 인상을 받는다. 2015년 8월부터 규슈(九州)전력의
 센다이(川内) 원전 1호가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2년 동안의 원전 제로 상태
 가 끝난 것은, 사고 이후 4년이 지나는 사이에 일어났거나 일어나려고 했
 던 변화들이 어떻게 무화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원전의 재가동뿐
 만 아니라 영토나 역사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 혹은 아시아 각국과의 계속
 되는 갈등, 안보법안의 강행,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설을 둘러
 썬 대립, TPP 체결 등 이후 일본 국가의 움직임을 좇다 보면 단어 그대로
 의 '복구'(復旧)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놓고, 3월 11일
 이후 문학의 언어는 어떠한 미래를 상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을 비추어보기 위한 단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재야 인문학 연구
 자, 언론인, 사회학자, 건축가, 미술가, 기업가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회가
 재해 복구 계획을 구상하여 출판한 『후쿠시마 제일원전 관광지화 계획』
 (福島第一觀光地化計画)을 3월 11일 이후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제안인
 동시에 상상이라는 점에 주목해 재해 이후를 그린 다른 소설 작품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3월 11일 이후 일본의 공동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거나 해체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관광지화 '계획'이든 소설이든
 언어로 이루어진 픽션임에는 분명하지만, 픽션이란 단지 다양한 차원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현실을 구성해 나가는 영위 자체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문학의 역할에 대한 물음을 동반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회)을 밀착 취재한 르포를 쓴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는 약 육천 여명이 모인 '8.21 후지 텔
 레비전 항의 데모'의 모습을 전하는데, 이 또한 데이트 중인 젊은이들, 유토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부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고양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Cf. Yasuda, Koichi. *Nettoto Aikoku*.

Ⅱ. 후쿠시마 관광지화 계획이 그리는 미래

‘후쿠시마 제일원전 관광지화 계획’이란 겐론(ゲンロン) 출판사를 중심으로 대학 바깥에서 다양한 인문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즈마 히로키(東浩紀)의 제안으로 2012년에 시작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부근을 부흥(復興)하려는 민간의 기획이다. 계획의 중심에는 아즈마 히로키를 비롯해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가이누마 히로시(開沼博), 우메자와 가즈키(梅沢和木), 하야미즈 겐로(速水健朗), 후지무라 류지(藤村龍至), 이데 아키라(井出明), 시미즈 료(清水亮)로 이루어진 연구회가 있다. 2012년 9월에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 이 계획은 2013년 11월에 『후쿠시마 제일원전 관광지화 계획』으로 출판되었다. 하지만 아즈마 히로키 자신이 밝히듯, 이는 무엇보다 “진재 이후 문학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가운데 3월 11일 이후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로부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는 것을 문학의 역할로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학적’인 기획이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 그런 것은 평화로운 시대의 심심풀이 일 뿐 의미가 없다고 딱 잘라버리면 마음은 편해진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여기에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현실의 인생을 위해, 즉 ‘여기에 있는 것’을 움직이고 바꾸기 위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실제 예로 보여주고 싶었다. [...] 그래서 이 계획에는 [...] 현실과 허구, 분석과 몽상이 혼재해 있다. 후쿠시마 제일원전 관광지화 계획은 보통의 계획이 아니다. 관료들은 결코 이러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다. (『福島第一原発観光地化計画』 185)

그렇다면 이 계획에서는 어떠한 미래가 상상되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계획이 무엇을 현실로 규정하고 그 위

에서 어떠한 공동성을 상상하고 있는지를 짚어 보겠다.

이 계획의 목적은 한마디로 원전 사고 발생지와 그 주변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아우슈비츠 등 이른바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에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은데, 이 계획에서는 이러한 곳들을 전거로 삼아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관광학의 개념을 도입한다.⁹ 실제로 체르노빌을 관광한 뒤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チェルノブイリ・ダークツーリズム・ガイド)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는 등, 여기서 체르노빌의 현재는 후쿠시마의 중요한 참조 대상이다. 계획의 거점이 되는 곳은 1997년부터 축구 트레이닝 시설로 기능하다 임시 피난소를 거쳐 2013년 6월까지 원전 사고 대응 거점으로 쓰인 J빌리지로, 계획은 이 곳을 “원전 사고와 그 뒤의 부흥을 상징하는 [...] 새로운 공간”(東, 「福島第一原発観光地化計画」 13)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단계적으로는 사고 9년 후이자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J빌리지에서 재해 부흥 박람회를 열고, 사고 25년 후인 2036년에는 이곳에 후쿠시마 게이트 빌리지라는 복합 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3.11이 일어난 2011년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던 1986년의 25년 후인데, 지금 체르노빌 주변의 방사선 양을 보아도 알 수 있듯 2036년에는 관광객이 드나드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방사선 양이 감소했으리라는 예상이 이러한 계획의 전제가 된다. 물론 2036년에 실제 상황이 어떻게 변

9. 이와 관련해서 비극적인 기억의 장소를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착안 자체에 대한 비판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아즈마는 이 계획이 처음 공개된 이래 재해 피해를 ‘뺏긴’ 곳으로 만들겠다는 데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곤 했음을 밝히면서, 그러나 자신은 ‘관광객의 경박함’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과연, 가령 다니엘 부어스틴(Daniel Boorstin)처럼 여행과는 구별되는 관광을 ‘가짜 사건’으로 놓고 별개의 진정한 사건을 상징하는 관점은 진실에 관한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개별적인 경험들을 재고 분류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오히려 여기서는 본문에서 제시하다시피 이 계획에서의 관광이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그대로 제시하겠다는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리 일관되게 하나의 이야기, 즉 국민/국가적인 대의 의미 지 쇄신과 부흥의 서사를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회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후쿠시마 제일원전과 그 주변은 “사고의 비극을 넘어 강력하게 부활한 ‘새로운 일본’을 상징하는 공간”(14)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관광지화 계획의 전체 윤곽에서 알 수 있듯, 후쿠시마를 관광지로서 복구한다는 발상은 무엇보다도 재난 이후의 ‘일본’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출발한다. 아즈마 또한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 계속되는 사고와 오염수 누출 등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3년 현재에도 사실상 사고는 수습되지 않고 있으며 저선량 피폭이나 내부 피폭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자 하는 이 같은 장기적인 계획의 ‘중핵’은 바로 “사고를 둘러싼 이미지의 갱신”(東, 『福島第一原発観光地化計画』 17)이다. 후쿠시마 현 후타바 군(双葉郡) 나미에마치(浪江町)에서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투어를 기획하고 있는 한 청년의 “후쿠시마의 부흥이 세계에서 본 일본국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긍지로 이어진다”(38)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목표에 잘 부합한다. 그리고 이는 2020년까지를 구상한 중기 계획에서 등장하는,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를 “[아시아] 재해 문명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후쿠시마를 ‘재해 교육의 성지’로 만들자는 제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언급한 부분 외에도, ‘세계의 눈에 비친 일본의 이미지’라는 관점은 계획에서 종종 중요하게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후쿠시마의 관광지화를 지탱하는 ‘다크 투어리즘’ 개념에 대한 이데 아

10. 이와 관련해서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시라이 사토시의 비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시라이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전전부터 이어져 온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부인(否認)의 심리와 연결하는데, 그에 따르면 아직도 후쿠시마에 돌아가지 못하는 피난민이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에서 이백오십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도쿄에서 열릴 이 ‘축제는 “그 사고는 전혀 별것이 아니었다. 아니, 애당초 사고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믿으려 하는 것이다(白井, 『墓碑銘』 252). 일본의 내셔널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후쿠시마 관광지화 계획이란 결국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모른척한 채 이 같이 사고란 결국 별것이 아니었고 사고 이후는 완벽히 통제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발신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키라의 이론적인 접근은, 재해 이후의 일본을 이렇듯 세계에 대(對)하여 상상하는 방식의 근원에 어떠한 과거 인식이 존재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크 투어리즘을 연구하는 것은 유럽과는 다른 일본의 전쟁의 복잡함을 ‘외국’에 전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의 전쟁은 어쩌서 복잡한가? 이데는 그 이유가 제2차 세계대전은 **중국에 대한 침략**이기는 했지만 남방에 대해서는 ‘해방 전쟁’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피폭 지역 또한 끌어안고 있기에 전쟁의 피해자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이 곧장 일본의 피해와 등치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원폭 피해자=일본인은 아닐 뿐더러 국가로서의 일본은 피폭한 자국민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의 예와 같이 ‘다크’한 관광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기억의 장소는 곧장 국민적인 역사 속에 회수된다. 이는 원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굳이 표명하지 않는 동시에 후쿠시마의 원전 건설과 사고 이후 처리를 둘러싼 국가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일은 그냥 건너뛰고 미래 지향적인 관광지 개발을 구상하는 영위 자체에 무엇이 결여돼 있는가라는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즉, 후쿠시마의 관광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억의 풍화(風化)를 막고 3월 11일을 줄곧 기억하기 위한 것임이 시종일관 표명되고, 부흥 박물관을 비롯한 기념 시설물들은 재해와 관련한 기억들을 아카이브하고 전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되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재해의 무엇을 어떠한 것으로서 기억할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계획에 참여한 멤버들이 각자 덧붙여 나간 2036년 후쿠시마 게이트 빌리지의 구상을 살펴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건축가인 후지무라 류지는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이나 1970년에 열린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중심 시설인 축제 광장(お祭り広場)

등을 설계한 단계 겐조(丹下健三)의 작업을 주된 모델로 삼고, 이러한 각각의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해 나갈지를 구상한다. 후쿠시마 게이트 빌리지란 그야말로 미래와 세계로 열린 ‘문의 마을’인데, 그 중심축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쓰나미의 잔해들을 모아서 만든 쓰나미의 탑이 위치한다. 게이트 빌리지에는 지방자치 과제해결센터, 인공 해변인 ‘리커버리 비치 돔’, 신(新) 축제 광장, IT특구 등과 함께 호텔과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러한 시설물들의 중심에 쓰나미의 탑이 놓일 것이다. 원전사고 발생 지점을 의미하는 ‘사이트 제로’는 히로시마의 원폭 돔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로서, 단계 겐조가 설계한 평화 공원과 마찬가지로 아치형 입구와 쓰나미의 탑, 사이트 제로는 직선 축으로 이어진다.

이 쓰나미의 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탑 내부에서는 전후 일본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전후 일본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전후의 역사는 전쟁을 하고 졌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탑 내부의 전시는 그 패배로부터 일어나 풍요를 향해 걸어온 일본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시대 순으로 전시된 가전제품을 차례차례 관람하면서 전후의 폐허에서 성공적으로 부흥한 일본 자본주의의 측면을 더듬어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직선 축 위에 있는 원전사고 발생지를 전망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데, 이는 곧 전후 경제 성장의 결말로서의 3월 11일을 전시한다. 즉 “쓰나미의 탑은 진재로 인해 일어난 그 사고를 반성하고 잃어버린 사자(死者)와 자본에 기도하는 장소이자, 이 기도와 반성에 입각해 다가올 미래의 풍요를 상상하는 장소”(東, 「福島第一原産観光地化計画」 99)인 것이다. 여기서는 원전이 분명히 인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소거되어 있으며, 쓰나미로 인한 죽음들과 경제적 손실은 동일한 선상에 놓인다. 그런데 사고가 지진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3월 11일의 사건이 전후 경제 성장의 결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일까? 그것이 사고 혹은 그 이전의 원전의 존재 자체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상, 진재로 인한 인명과 자본의 피해는 그저 불

운일 뿐이다. 그렇기에 잠깐 과거를 향해 기도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 이후로도 당연히 이어질 경제 성장을 별다른 무리 없이 상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에서 직접 언급되듯, 기실 인공 지반이나 옥외 에스컬레이터, 대형 지붕 등으로 이루어진 게이트 빌리지 자체는 오사카 만국 박람회의 미래 도시 이미지인 동시에 대도시에 지어지는 대형 쇼핑몰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 대형 건축물을 바탕으로 돈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발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제 개발 논리에 그대로 기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반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이는 게이트 빌리지의 구상이 기본적으로 단계 겐조의 건축을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42년에 단계는 대동아건설영조 계획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바 있는데, 대동아공영권을 기념하는 이 건축물의 구상은 패전 후에 히로시마 평화공원 설계로 이행된다(권혁태). 입구와 중앙의 기념비, 왼쪽 돛을 잇는 축은 예전의 설계에서는 참배의 축이었다. 요네야마 리사(Lisa Yoneyama)에 따르면, 두 건축물의 구조적 연속성과 위령비 옆에 게양된 일장기는 전전의 일본과 ‘피폭 내셔널리즘’의 연속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일본의 주류 사회에 일본 제국의 기억이 부재함으로써 빚어지는 옛 식민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망각과도 관련된다. 그녀는 이를 기억상실증적 생략(amnestic elision)이라 부르는데,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이러한 생략은 평화공원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는 후쿠시마 제일원전 관광지화 계획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후쿠시마 게이트 빌리지의 소비 공간을 통해 사람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후지무라는 “후쿠시마 제일원전 관광지화 계획은 사고 재해라는 서사를 바탕으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낳고 일본을 재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계획”(東, 「福島第一原発観光地化計画」 129)이라고 밝힌다. 이는 쓰나미의 탑 내부 전시뿐 아니라 이 계획 자체가, 패전과 동시에 영토적으로 구획된 일본이라는 국가의 재생으로 이야기되는 전후 역사를 3월 11일 이후의 역사로서 다시금 되풀이하려는 관

점에서 상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Ⅲ. 현실에 개입하는 상상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으로서 이 계획을 읽을 때, 지금까지 살펴봤듯 그것이 그려내는 일본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앞의 인용에서 보았듯, 아즈마는 철학과 문학을 ‘여기에는 없는 것’ 즉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고자”하는 꿈이나 이상, 허구 등을 다루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실과 관련한 말들이 주를 이루는 3월 11일 이후의 상황에서 문학과 철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줄곧 질문해 온 끝에 나온 후쿠시마 제일원전 관광지화 계획은 후쿠시마의 부흥에 대한 제안인 동시에 문학과 철학의 부흥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것은 만일 이 계획이 국내의 사람들의 후쿠시마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여기에는 없는 것’을 상상하는 말들이 ‘여기에 있는 것’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다소 소박한 결론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시되는 ‘현실’이란 바로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없는 것’을 나누는 그 경계 자체와 관계되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올바른 말을 거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떠한 현상을 자명한 것으로서 전제하는 순간 아즈마 등의 계획은 특정한 현상들을 바꿀 수 없는 현실로서 추인하고 만다. 아즈마가 말하듯 정말로 ‘현실’ 자체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문학이 물어야 할 것은 먼저, 무언가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서 나타남과 동시에 무엇이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서 현실 바깥으로 밀려나 버리는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픽션이 현실의 경계에 관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다.

계획의 서두에서 아즈마는 “우리 일본인은 후쿠시마 제일원전사고의 진실과 이후의 부흥에 대한 정보를 세계에 발신[할] [...] 책무를 지고 있다”(12, 저자강조)라고 쓰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관광지화 계획의 내용

과도 상응한다. 그런데 여기 당연한 주어로서 자리하는 ‘우리 일본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묻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픽션으로써 그 현실 자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¹¹ 지식이 없거나 편견에 빠져 있는 ‘관광객’을 일견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논의 속에서 등장하는, 관광지화가 일반 관광객들(특히 외국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계몽과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는 식의 언급은, 아즈마가 문제 삼고자 하는 절대적인 진실과 넘어서고자 하는 현실이 이미 어떠한 정해진 방식의 계몽과 공감을 전제하고 있음을 뜻하지 않게 드러낸다.

앞에서 본 사토 유아는 3월 11일에 관한 문학자들의 침묵을 일갈했지만, 실제로 어떤 문학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의 경계를 되묻는 작품을 내놓기도 했다. 3.11 이후 가장 먼저 발표된 소설 중 하나가 『군조』(群像) 2011년 6월호에 처음으로 실린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신2011」(神様2011)인데, 1993년에 쓴 「신」(神様)을 2011년 3월 11일의 미래로서

11. 아즈마는 “재해를 당한 사람(被災者)에게 다가선다라는 말은, 우선은 정부와 전력회사의 책임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먼저 원전 체로다라는 말은, 모두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염상’(炎上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비판적인 코멘트 등이 몰려드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 인용자)일 뿐이지 않았나”라며 계획에 대한 주된 비판을 가볍게 일축한다(『寄せて』). 이렇게 ‘현실’을 자의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존재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들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방식 자체에 폭력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즈마가 말하는 이 ‘우리 일본인’ 속에는 피난을 둘러싼 분단 또한 존재한다. 피난 대상 지역인 도미오카초(富岡町)의 타운 미팅을 바탕으로 현재의 부흥정책이 갖는 문제를 분석한 『원전 피난자의 목소리를 듣는다』(原発避難者の声を聞く)에 따르면, 이 관광지와 계획의 중장기 구상이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한 재편된 피난구역은 노다 총리의 ‘수습 선언’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피난민들이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귀환정책의 전제가 된다(귀환 곤란 지역을 제외한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거주제한구역). 하지만 배상을 둘러싼 피난민들 사이 혹은 피난민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갈등, 남아있는 사람과 피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저선량 피폭 등 방사능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제염 폐기물의 중간저장소 설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사람들 사이의 양극 등 피난이라는 경험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라는 지리적인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 다층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우리 일본인’과 동행을 이야기하는 언설은 이러한 경험들을 소거함으로써 성립한다.

다시 쓴 이 소설은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다시 구성하는지를 보여준다. 주인공인 '나'가 이웃에 사는 곰과 함께 산책을 하는 내용인 「신」과 마찬가지로, 「신2011」에서도 '나'가 곰과 함께 강가로 산책을 가서 보내는 하루가 담담히 그려진다.

강가로 가는 길은 무논을 따라 나 있다. 포장된 길이라 이따금 차가 지나간다. 모든 차가 우리 바로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서행하면서 크게 피해간다.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무척 덥다. 논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곰 발이 아스팔트를 밟는, 희미한 자박자박 소리만 규칙 바르게 울린다.

덥지 않아? 하고 물었더니 곰은 “덥지는 않지만 아스팔트길을 오래 걸으면 조금 지칩니다”라고 대답했다.

“강가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말한다. 그러고는 “혹 당신이 덥다면 국도로 나가서 휴게소에라도 들어갈까요” 하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 나는 모자를 쓰기도 했고 더위에는 강한 편이라서 거절했지만, 어쩌면 곰 자신이 한숨 돌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잠시 말없이 걸었다. (川上 56)

강가로 가는 길은 원래 무논이었던 지대를 따라 나 있다. 토양 오염 때문에 무논을 거의 대부분 파 뒤집어 놓아서 번들번들한 흙이 부풀어 올라 있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데 방호복에 방진 마스크, 허리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로 무장하고 있다. ‘그 일’ 이후에는 아예 출입할 수 없어 지진으로 갈라진 땅이 언제까지나 남아있던 무논 옆길이지만, 얼마 전에 완전히 포장을 했다. ‘그 일’의 제로 지점과 꽤나 가까운 이 부근에도 차는 제법 다니고 있다. 모든 차가 우리 바로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서행하면서 크게 피해간다.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방호복을 안 입고 있어서 피해 가는 걸까?”라고 말하자 곰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피폭량은 열심히 아껴줬으니까 누적 피폭량 저금도 잔고가 있고, 게다가 오늘 SPEEDI 예상으로는 이 부근에 바람도 없을 텐데.”

변명처럼 말하자 곶은 또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곶 발이 아스팔트를 밟는, 희미한 자박자박 소리만 규칙 바르게 울린다. 덩지 않아? 하고 물었더니 곶은 “덩지는 없지만 아스팔트길을 오래 걸으면 조금 지칩니다”라고 대답했다.

“강가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말한다. 그리고는 “혹 당신이 답다면, 물론 저는 인간에 비해 용적이 크니까 당신보다 피폭 허용량의 상한도 높을 테고, 맨발로 비산먼지 퇴적치가 높은 흙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역시 흙길이 아스팔트길보다는 시원하지요. 그쪽으로 갈까요.” 하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 나는 모자를 쓰기도 했고 더위에는 강한 편이라서 거절했지만, 어쩌면 곶 자신이 흙길을 걷고 싶었는지 모른다. 잠시 말없이 걸었다.

(66-67)

「신」과 「신2011」의 차이는 이렇듯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 ‘그 일’을 계기로 생겨난 것이다. 곶과 강가로 산책을 간다는 동화적인 일상은 변함없지만, 똑같은 서술 사이사이에 ‘그 일’이 가져온 변화가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나’와 곶은 피폭량과 비산먼지에 아무렇지 않게 신경을 쓰며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방호복을 입고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강가에서 만난 남자는 “곶은 스트론튬에도, 그리고 플루토늄에도 강하다면서”(川上 67)라고 부러운 듯 말한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가 쓰듯 쓰나미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원자력발전소의 노심 용융과 수소 폭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묵시록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일 없이 일상이 영위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소설은 바로 그 변함없는 일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적인 변화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 가와무리는 이를 “회복시킬 수도, 원래도 돌아갈 수도 없는”(41) 세계의 변화로서 읽어내는데, 2011년에도 일상이 묵묵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쓰나미나 원전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이러한 변화들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이 소설이 그려낸 아직 정확히 이대로 도래하지는 않은 현실이 2011년 이후의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플루토늄이나 베크렐 같은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듣게 된,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과거와 다름없이 영위한다고 생각하는 이 일상이 어떠한 사건 ‘이후’의 미래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불사의 섬」(不死の島)으로도 이어진다. 이 단편소설에서 2011년 후쿠시마의 사건을 거친 일본은 2015년에 정부가 민영화되면서부터 세계와 교류가 끊긴다. 일본에 착륙하면 기체에도 방사성 물질이 부착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비행기도 일본에는 가지 않게 되고, 이윽고 2017년에 일어난 태평양대지진으로 도쿄까지 쓰나미에 휩쓸리고 난 6년 후, 주인공인 ‘나’는 일본 여권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 입국 심사관에게 ‘그 뒤’로 한 번도 일본에 간 적이 없다고 강변한다. 일본에 밀항한 한 포르투갈인이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그리고 이후 핫스팟이 된 간토(関東) 지방 22개소에서 피폭됐을 당시 백 살이 넘던 노인들은 지금도 건재하지만, 2011년에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은 병에 걸려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젊다는 형용사에 젊음이 있던 시대는 끝나고 젊다고 하면 설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눈이

12. 다카하시 겐이치로는 이 두 소설을 말 그대로 겹쳐놓으면서, ()와 []로 ‘그 일’ 이후에 무엇이 나타났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 일’이 있기 전에 강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혜엄을 치거나 낚시를 하고 있었(고 가족들도 많았다. 이제 이 지역에 어린아이는 한 명도 없) (다).”(『原笈』 205). 이때 1993년의 어린아이는 2011년에는 삭제되어 []속에서만 존재하고, 다카하시는 이를 미래에 죽은 어린아이들의 유행으로서 읽어낸다.

보이지 않는다, 음식을 못 먹는다, 말을 못한다 같은 의미가 돼 버린”(19) 미래, 이러한 미래의 일본을 다와다 요코는 『헌등사』(獻燈使)에서 다시 한번 그린다. 주인공인 요시로(義郎)는 증손자인 무메이(無名)와 단둘이 살아가면서 치아도 약하고 의자에 앉아있기도 어려운 그를 돌본다. 민영화된 정부가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외래어가 사라졌고, 영어 학습은 금지되어 있다. 번역물을 출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외국어 노래를 40초 이상 부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오래 거주하면 신체에 복합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도쿄를 떠나 사람들은 도시 바깥으로 이주했으며, 생명보험 또한 금지되었다.

차별적인 용어라는 이유로 돌연변이가 ‘환경 동화’로 대체되고 ‘산보’가 사어가 돼 버리는 등 다른 세대 간에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계는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는데,¹³ 한편으로 이러한 미래는 재해를 중심으로 나뉜 일본 국민으로서의 우리와 외국인으로서의 그들이라는 대립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상상해본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쇄국 즉 완전히 닫힌 나라로서의 일본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가령 외래어가 금지된 일본에서 ‘made in 시코쿠(四国)’가 ‘시코쿠까지(마테 まで)’가 되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게 된 공항의 터미널이 ‘民なる’(타미나루, 일본어로 터미널과 발음이 유사하다)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 외래어의 묘한 흔적이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이 단어들은 쇄국정책이 의도한 바대로 순수한 일본어라고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프랑스빵, 영국빵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렇게 부르니 되레 일본적이어서 그럽군요”라고 요시로가 회상하듯, 실은 무엇이 바깥에서 유래한 것이며

13. 가령 남상욱은 여기에서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유출이 신체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근거가 되는 언어를 파괴하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짚으며, 이 작품이 3.11 이후를 상상한 다른 문학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통해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고 있는 동시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언어의 재앙’으로 예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남상욱, 「3.11 이후 일본문학과 ‘이후’의 상상력」, 『창작과비평』 168 (2015): 70-92.

무엇이 순전히 닫힌 국민 공동체 내부의 것인지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외국어와 일본어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구별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듯, 재난을 경험하고 그 미래를 상상하는 ‘우리’의 경계 또한 마찬가지다. ‘헌동사’ 즉 쇠국을 비집고 외국에 나갈 어린 사자(使者)라는 역할은 바로 이렇게 닫힌 공간으로 설정된 미래 자체의 틈을 오가는 존재인 셈이다.¹⁴

실제로 관광지화 계획뿐 아니라 3월 11일 이후에 나온 많은 언설들에서 변화된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경계를 묻는 일이기도 했다. 가령 사카이 나오키는 ‘국민의 단결’을 장려하는 언설을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일본인을 쫓아야만 한다”(32)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 결집이 국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간토대지진 당시 몇 천 명의 ‘이등국민’들이 살해되었던 기억이 겹쳐진다. 그리고 이는 3월 11일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특히 피난의 문제에서 외국인과 자국민을 대립시키는 언설들이 팽배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때 피해지도 아닌 도쿄나 그 주위에 살면서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달아나는 사람들은 ‘비국민’으로 인식되었는데, 그렇다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로 이 피난이자 몸의 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일본과 그에 속하는 후쿠시마가 보여주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라보는 세계라는 타자를 자명한 현실로 놓고 시작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미래를 상상할 가능성 또한 숨어있다.

가령, 방시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래저래 계

14. 물론 『헌동사』가 이러한 가상의 미래를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그리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201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바뀐 일상은 일상으로 영위되지만, 그것은 『신2011』과는 달리 그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는 작업과도 이어져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형질이나 끈이 아니니까 세로로 똑바로 늘려서 길이를 채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교원이 있었는데, 요나타니도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싶었다. 아이들은 각자 마음대로 구불렁구불렁하고 있으면 된다. 자유롭게 장난을 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체력만 갖추면 된다.” (142).

산한 시버트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자체를 수치화한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쓸 것을 주장하는 야부 시로(矢部史郎)는 도쿄에서 나고야로 피난한 뒤 일종의 민간 방사능 측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피난을 둘러싼 비난 섞인 시선을 거꾸로 뒤집어, ‘프로 국민’이 아니라 기꺼이 비국민, 외국인이 되라고 권한다. 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경계를 재정의했고, 이 재난을 대하는 태도 속에는 ‘일본 문화’나 ‘일본인다움’, ‘일본 사회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며 “우리가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될”(矢部, 『3.12』 54) 가능성이 존재한다.¹⁵ 도쿄 도심에서 안보법안 반대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까지 염려하는 그의 눈에 비치는 현실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는 비과학적인 ‘망상’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주창하는 ‘제로 베크렐 파(派)’에서 재난 이후의 공동성을 기왕에 존재하는 일본 국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의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 전후의 재판(再版)에 다른 아날 새로운 부흥과 복구의 기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백만 여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에게서 ‘국내 난민’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상상 또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야부가 히로시마를 거론하면서 기념물과 기념식전이라는 용

15. 야부 시로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3월 11일과 원전 사고가 일어난 3월 12일 구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3.11이라는 ‘미증유의 자연 재해’라는 구도 속에 원전 사고와 방사능 확산을 같이 뭉쳐 넣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연 재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3.12’라는 명칭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가령 ‘현당사’에서 현당사로 보내기 적합한 어린이를 찾는 일을 하는 교사가 무메이를 비롯한 어린 학생들에게 “일본이 이렇게 돼버린 것은 지진이나 쓰나미 때문이 아니야. 자연 재해뿐이라면 벌써 한참 전에 극복했을 테니까. 자연 재해가 아니란다”(136)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과도 통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쓰나미의 피해가 원전 사고 및 이를 낳은 전후의 경제 체제와도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자연 재해로 인한 사자들을 사고하는 것 또한 국민적인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지진,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구대어 변별하는 관점을 취하지 않았다. ‘힘내라 일본’은 무엇보다 쓰나미로 인한 죽음과 상처 또한 ‘일본의’ 것으로서 전유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기(用器)에 히로시마를 회수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의 일본과는 다른 현실, 일본이라는 공동성을 당연히 전제할 수는 없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IV. 맺으며

2016년 4월, 구마모토(熊本)에서는 1995년에 일어난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과 유사한 규모의 큰 지진에 이어 심각한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피난 생활에 내몰린 가운데, 전술한 센다이 원자력발전소의 운행 정지를 둘러싸고 다시금 찬반 논의가 한창이다. 시간이 흘러, 지진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또다시 전후, 혹은 고베나 후쿠시마를 잇는 복구가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3.11 이후가 재난의 이후가 아니라 기실 또 다른 재난의 이전에 다름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난을 사고한다는 것은 그 이후 어떠한 미래를 상상할 것인지, 어떠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현재 또한 다가올 미래의 이전인 것이다.

3월 11일 이후 현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가와카미 미에코는 이렇게 표현한다.

신칸센에서 오사카로 돌아갈 때 풍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달리고 있는 이곳을 파도가 삼켰다’라는 상상이 가까워진다고 할까요. 아마 지진 이후에 신칸센에서 풍경을 바라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면, 다면’이 아닌,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거리감으로 세상이 보였던 거예요. (222)

『신2011』이 ‘그 일’을 전후로 한 두 개의 똑같은 소설을 나란히 놓으면서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거리감이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

의 상상 속에서 ‘그 일’ 이후는 결코 그 이전과 같을 수가 없고, 상상은 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 상상을 떠안는 것은 누구인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실을 변화시킬 계기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내부와 외부, 일본인과 외국인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제기하였다. 피난을 둘러싼 갈등은 국민과 비국민이라는 논리를 다시금 만들어냈으며, 복구의 상상력은 ‘힉내라 일본’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적 정체성을 다시금 강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방사성 물질은 국가와 국민의 경계를 얼마든지 넘을 수 있고, 원자력발전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의 일이기도 했다. 자연 재해로서의 지진이나 쓰나미 또한 누군가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한 누군가들을 만들어내는 힘은 결코 국민적 정체성에서만 비롯되지는 않는다.

후쿠시마 관광지화 계획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구상들은 아마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복구가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지탱해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을 미래에 대한 상상이자 현실에 균열을 일으키는 픽션으로 읽는다면, 거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현실과 관련한 물음들이 삭제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논자들이 3월 11일 이후와 전후를 겹쳐 놓으면서 지적했듯 후쿠시마가 전후의 귀결점이었다면, 전후와 똑같은 고도 경제 성장의 논리로 후쿠시마를 재건하는 것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야부 시로가 지적하듯, 간토대지진에서의 부흥이 재일조선인 학살, 사회주의자 탄압, 식민체제 구축과 병행한 것처럼 ‘빛나는 부흥’으로 향하는 과정에 무엇이 숨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엇보다, 재난을 일본의 것으로서 사고하고 복구를 통해 일본의 “균열을 매우”(阿部 45)¹⁶려고 하는 상상, 당연해 보이는

16. “지진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미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일본에 꽤나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

현실과는 다른 현실에 대한 상상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3월 11일 이후의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재난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영위되는 현실의 틈을 드러내고 자명한 공동성에 균열을 내는 상상으로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아즈마 히로키의 말을 뒤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문학적 상상들은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으로 ‘여기에 없는 것’을 현전화하고 있다고.

다. 여기서 균열을 메우는 것은 말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는 더 이상 공통된 전통적 의식이나 공통의 국민이라는 궁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면, 운 좋게도 일본어 화자와 일본인은 거의 일치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나 배경을 가진 인간이 있어도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국가 최대의 강점이고, 이 원리로 돌아갈 때 실은 문학의 역할은 무척 커집니다.”(阿部 45).

‘Literature Beyond 3/11’이라는 영어 부제 아래 진재 이후의 문학에 대해 이야기한 이 좌담에서 아즈마 히로키는 언어와 문학을 국민의 공동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다른 현실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문학은 일본어 화자와 일본어 사이의 간격을 ‘거의’라는 말로 뭉뚱그리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매끈한 하나의 언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본어’에 얼마나 많은 균열과 불화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Works Cited

- Abe, Kazushige, et al. [阿部和重 外]. “Sinsaito ‘Fuikushon’tono ‘Kyorī’” [Ruptured Fiction(s) of the Earthquake: Language/ Life/ Narrative/..., 震災と「フィクション」との「距離」]. *Ruptured Fiction(s) of the Earthquake* [震災とフィクションの「距離」]. Tokyo: Waseda Bungakukai [早稲田文学会], 2012. Print.
- Azuma, Hiroki [東浩紀編]. “Fukushima Daiichi Genpatsu Kankochika Keikakutenni Yosete” [On Fukuichi Kanko Project, 福島第一原発観光地化計画展に寄せて]. *Azuma Hirokino Kajou Genron* [Azuma Hiroki’s Spiral Speech, 東浩紀の渦状言論]. N.p., 26 Dec. 2013. Web.
- Azuma, Hiroki, ed. [東浩紀編]. *Fukushima Daiichi Genpatsu Kankochika Keikaku* [Fukuichi Kanko Project, 福島第一原発観光地化計画]. Tokyo: Genron [ゲンロン], 2014. Ebook.
- Azuma, Hiroki, Ichikawa Masato, and Takahashi Genichiro [東浩紀編, 市川真人, 高橋源一郎]. “Shinsaikara Bungakue” [Literature Beyond 3/11, 震災から文学へ]. *Genron Etc* 5 (2012): 30–51. Print.
- Ikezawa, Natsuki [池澤夏樹]. *Owarito Hajimari* [The End and the Beginning, 終りと始まり]. Tokyo: Asahi Shimbun Publications [朝日新聞出版], 2013. Print.
- Kainuma, Hiroshi [開沼博]. *Fukushima’ron* [About “Fukushima,” 「フクシマ」論]. Tokyo: Seidosha [青土社], 2011. Print.
- Karatani, Kojin [柄谷行人]. “Jishinto Nihon” [Earthquake and Japan, 地震と日本]. *Gendaishiso* [Revue de la Pensée d’Aujourd’hui, 現代思想] 39.7 (2011): 22–25. Print.
- . “Hangenpatsudemoga Nihonwo Kaeru” [Anti-Nuclear Power Demo Will Change Japan, 反原発デモが日本を変える]. *Karatani Kojin Official Website*. N.d. Web.
- Kawakami, Hiromi [川上弘美]. “Kamisama2011” [God Bless You 2011, 神様2011]. *Soredemo Sangatsuwa Mata* [March is Made of Yarn, それでも三月は、また]. Tokyo: Kodansha [講談社], 2012. 53–78. Print.
- Kawamura, Minato [川村湊]. *Shinsai · Genpatsu Bungakuron* [The Literature of Earthquake and Nuclear Power, 震災 · 原発文学論]. Tokyo: Impakutotshuppankai [インパクト出版会], 2013. Print.
- Koide, Keisuke [小出裕章]. *Genpatsuha Iranai* [We Don’t Need Nuclear Power, 原発はいらない]. Tokyo: Gentosha [幻冬舎], 2011. Print.

- Komory, Yoichi [小森陽一]. *Shishanokoe, Shojyanokotoba* [Voice of the Dead, Words of the Living, 死者の声, 生者の言葉]. Tokyo: Shinnihonshuppansha [新日本出版社], 2014. Print.
- Kwon, Heoktae [권혁태]. “Wonpok Wiryeongbie Peolleogineun Hinomaru Gitbalui Uimi” [The Meaning of a Hinomaru Flag Waving at Memorial Cenotaph for Atomic Bomb Victims, 원폭 위령비에 펼쳐 이는 히노마루 깃발의 의미]. *Pressian*. 28 Oct. 2008. Web.
- Nagahara, Yutaka [長原豊]. “Boudano Namida, Enmanna Artemisia Vulgaris” [Flood of Tears and Slow Artemisia Vulgaris, 滂沱の涙、緩慢な Artemisia Vulgaris]. *Gendaishiso* [Revue de la Pansée d’Aujourd’hui, 現代思想 39.7 (2011): 60–66. Print.
- Oguma, Eiji [小熊英二]. *Shakaiwo Kaeruniwa* [To Change the Society, 社会を変えるには]. Tokyo: Kodansha [講談社], 2012. Print.
- Sakai, Naoki [酒井直樹]. “‘Musekininno Taikai’ Mitatabi” [“System of Irresponsibility” Three Times, 「無責任の体系」三たび]. *Gendaishiso* [Revue de la Pansée d’Aujourd’hui, 現代思想 39.7 (2011): 26–33. Print.
- Sato, Yuya [佐藤友哉]. *Sennengoni Ikinokorutameno Seishunshosetsu Koza* [Youth Novel Lecture to Survive after 1000 Years, 1000年後に生き残るための青春小説講座]. Tokyo: Kondansha [講談社], 2013. Print.
- Shirai, Satoshi [白井聡]. *Eizokuhaisenron* [Permanent Defeat, 永続敗戦論]. Tokyo: Ohtasbooks [太田出版], 2013. Print.
- _____. *‘Sengo’no Bobimei* [An Epitaph of “Postwar,” 「戦後」の墓碑銘]. Tokyo: Kinyobi [金曜日], 2015. Print.
- Takahashi, Genichiro [高橋源一郎]. *Koisuru Genpatsu* [A Nuclear Reactor in Love, 恋する原発]. Tokyo: Kodnsha [講談社], 2011. Print.
- _____. *Hijoujino Kotoba* [Language in a Time of Crisis, 非常時のことば]. Tokyo: Asahi Shimbun Publications [朝日新聞出版], 2012. Print.
- Takahashi, Tetsuya [高橋哲哉]. *Giseino Sisutemu* [The Sacrificial System, 犠牲のシステム]. Tokyo: Shueisha [集英社], 2012. Print.
- Tawada, Yoko [多和田葉子]. “Fushinoshima” [The Island of Eternal Life, 不死の島]. *Soredemo Sangatsuwa Mata* [March Is Made of Yarn, それでも三月は、また]. Tokyo: Kodansha [講談社], 2012. 11–21. Print.
- _____. “Kentoushi” [Kentoushi, 献灯使]. *Kentoushi* [Kentoushi, 献灯使]. Tokyo: Kodnasha [講談社], 2014. Ebook.
- Tomiyama, Ichiro [富山一郎]. *Yuchagui Sasang* [Settlement in Floating, 유

- 착의 사상]. Trans. Sim Jeongmyoung [심정명 옮김]. Paju [파주]: Geulhangari [글항아리], 2015. Print.
- Yabu, Shiro [矢部史郎]. *3.12no Shiso* [Thoughts of 3.12, 3.12の思想]. Tokyo: Ibunsha [以文社], 2012. Print.
- . *Hoshanowo Kuetoiunara Sonna Syakaiwa Iranai, Jero Bekurerupa Sengen* [I Don't Need Such Society If It Tells Me to Eat Radioactivity, the Declaration of Zero Becquerel, 放射能を食えというなら、そんな社会はいらない、ゼロベクレル派宣言]. Tokyo: Shinhyoron [新評論], 2012. Print.
- Yamamoto, Kahoruko, et al. [山本薫子 外]. *Genpatsu Hinanshano Koewo Kiku* [Listening to the Voice of Evacuees of Nuclear Disaster, 原発避難者の声を聞く]. Tokyo: Iwanami Shoten [岩波書店], 2015. Print.
- Yasuda, Koichi [安田浩一]. *Nettoto Aikoku* [Internet and Patriotism, ネットと愛国]. Tokyo: Kodansha [講談社], 2012. Print.
- Yoneyama, Lisa. *Hiroshima Traces: Time, Space, and the Dialectics of Memory*. Berkely, CA: U of California P, 1999. Print.

Abstract

How to Imagine Japan and the World after 3/11

Jeongmyoung SIM (Hanyang University)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sunami,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3/11), there have been many discourses which compared Japan after 3/11 to postwar Japan.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ruins after the disaster remind people of the postwar catastrophe, but because it is recognized as an opportunity to change current Japanese society. However, after the anti-nuclear movement cooled down and people began to talk about a way out of the Fukushima accident, Japan now seems to be on its way to restoration.

Based on above consideration, this article analyzes some fictions that imagine the future after 3/11, for fiction or literature is a sort of practice which changes “the real” by presenting a possibility to imagine a different world. Reading *Fukuichi Kanko Project* as a work of literary imagination, w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future Japan or Fukushima it suggests is an extension of postwar Japan. Not only that, the project starts from supposing a collectivity of the Japanese nation as its basic intention shows. By contrast, some literature after 3/11 visualizes gaps and splits in seemingly unchanged reality. *God Bless You 2011* reveals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at thing” by juxtaposing these two, and *The Island of Eternal Life* and *Kentousi* go one step further to describe Japan as a “closed” nation following an imaginary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accident after 3/11. In particular, *Kentousi* questions if one imagines Japan and the Japanese language as completely closed boundaries. If it is possible to talk about “post 3/11 literature,” it would be a practice that can alienate so-called reality from itself and reveal differences in seemingly homogeneous collectivity.

Keywords: 3.11, Fukushima, Tawada Yoko, imagination, disaster

Jeongmyoung SIM is HK (Humanities Korea) research professor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Comparative History and Culture, Hanyang University. She received a Ph.D. in Japanese studies from Osaka University in Japan. Her main research interests are cultural theory and practice, nationalism, the politics of language, and contemporary Japanese literature. Her recent articles are “Redrawing the Boundaries in Ishimure Michiko’s Kugai Jodo” and “3.11 and the End of the Postwar: About Meaningless Death and Mourning.”
yorito@gmail.com

Received: 30 April 2016 Reviewed: 16 May 2016 Accepted: 27 May 2016
